

푸른길에서 맨발길까지... 녹색 짙어지자 삶의 질 좋아져

‘공원 도시’ 광주

〈2〉 동구의 도심 공원

구도심인 광주 동구는 비교적 좁은 도시 면적에 과거 행정중심지로서 노후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게 특징이다.

광주시와 동구는 민선 8기 들어 자칫 답답할 수 있는 구도심 공간 개선을 목표로 도심 곳곳에 공원을 만들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 ‘조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사업’, ‘도시공원 맨발걷기 좋은 길 사업’ 등으로 나날이 녹색이 짙어지면서, 시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일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동구에는 현재 총 50개소 24만 9036㎡의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다. 근린공원 4곳, 어린이공원 10곳, 소공원 33곳, 역사공원·수변공원·문화공원 각 1곳씩이다.

근린공원으로는 푸른길공원, 금남로·산수·두암제2·용산 근린공원이 있으며, 광주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으로 학동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또 계림4주택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대로 계림동 일대에도 3842㎡ 규모의 도심 공원이 들어선다.

2002년 공원으로 지정된 푸른길공원은 동구 계림동 광주역·남구 진월동 동성중 입구까지 이어지는 공원으로, 12년간 옛 경전선 폐선 부지 기찻길에 꽃과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초록의 길, 생명의 길로 새롭게 태어났다.

푸른길공원의 면적은 12만 227㎡(동구 5만 8205.8㎡, 남구 6만 2021㎡)로, 길이는 8.08km(동구 3.75km, 남구 4.33km)에 달한다.

총 50개소 25만㎡ 공원 조성
금남로공원은 문화 공원으로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 등 추진
학동근린공원 조성에 큰 기대

폐선 부지가 공원으로 거듭한 데에는 ‘2002 광주 비엔날레’의 영향이 컸다. 당시 광주시는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사용하려 했지만, 비엔날레 프로젝트를 계기로 관 주도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나무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길을 시민 힘으로 직접 만들자는 뜻이 모인 것이다. 시민들은 직접 한 그루씩 나무를 심어 가며 공원을 가꾸는 데 힘을 모으기도 했다.

금남로3기는 동구를 대표하는 또 다른 공원이 있다.

바로 2006년 8월 조성한 금남로 공원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쇠퇴하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한국은행 지점 철거 부지에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남로공원은 미디어아트 등을 전시하는 공간과 소공연장 등이 있어 휴식은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추억의 종장축제’를 비롯한 문화 행사가 열릴 때면 금남로공원에서 시민들이 모여 공연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주의 중심지였던 금남로 한 가운데 있는 만큼 공원에는 3·15의거 발발지 표시석, 4·19혁명 진원지 표시석, 일제강점기 학생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던 김기권 문방구점 터지 표시석, 6월민중항쟁 표시석 등 역사적 기념물들도 한 데 모여 있다. 더불어 ‘광주폴리’ 작품인 ‘유동성 조절’과 평화의 소녀상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조성된 광주시 동구 푸른길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동구의 도시공원은 지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산수1소공원과 내남2소공원 등에 맨발길이 조성됐으며, 푸른길공원과 계림동 일대에 가로 숲길을 나무 10종 4000그루, 화초 15종 2399그루를 심기도 했다.

학동 269-1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광주시 재정공원 ‘학동근린공원’도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곳은 1967년 공원지정고시를 받은 지역으로,

2023년 12월 새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계획 변경고시가 내려졌다.

공원 총면적은 4만7842㎡이며, 쉼터와 운동시설, 잔디마당뿐 아니라 인근에 조성돼 있는 동구 청소년수련관까지 연계해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재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부지 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동구 건축과에 철거 신고를 낸 상태다. 철거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건물 5개

동을 철거하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공원 준공일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로 예정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노후 건물이 많은 구도심 동구 곳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생명을 불어 넣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학동근린공원 등을 명품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더 많은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총리·‘장수 장관’ 교체하나...尹, 국정 쇄신 ‘주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 인적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외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한중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PEC-G20 순방 귀국

일정에 맞춰 인적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검증 작업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론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국무총리 교체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나, 강력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

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한남동 7인회’로 지칭된 참모 라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 선임행정관은 2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일단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실상 자진 사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인 개각과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인사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퇴진’ ‘임기단축 개헌’ 토론회

민주당, 명태균씨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씨는 누군가에

게 “어제 김진태 (강원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측 관계자는 “공천을 덜컥 그냥 받은 게 아니다. 단식농성으로 컷오프의 부담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어 국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